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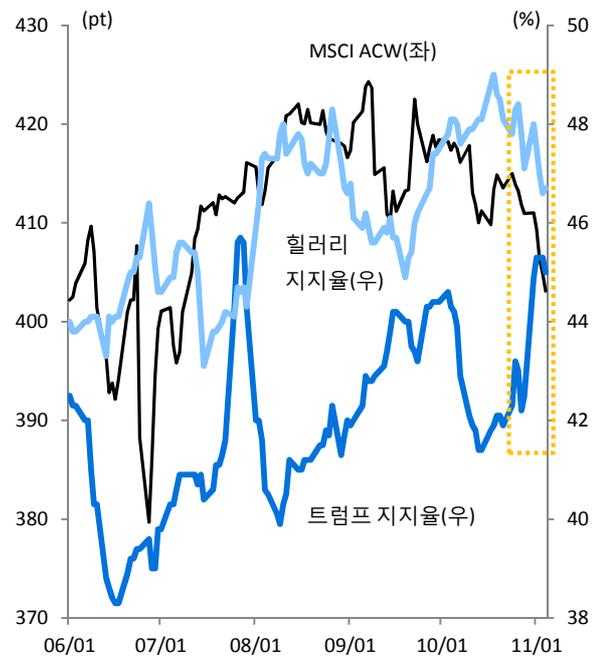
미 대선, 대응 전략을 염두에 두고 결과를 기다리자

- 1) 미 대선, 이제는 결과를 확인할 때**
 - 이번 주 미국 대선 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 우리시간 8일 밤부터 대선 투표가 시작. 주요 경합 지역의 투표가 마감되는 우리시간 9일 오전부터 출구조사 결과들이 발표될 예정
 - 국내 증시에서는 힐러리 당선 시 회복, 트럼프 당선 시 급락이라는 인식이 지배적. 트럼프 당선 시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10월 중순 이후 글로벌 증시가 선반영해 왔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
- 2) 일차적인 반응이 심리에 의한 것이라면 심리지표를 참고하자**
 - 글로벌 증시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심리 지표들도 트럼프 당선과 관련된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서베이 지표인 AAI Bull/Bear 비율은 경험적인 저점 영역에 위치하고 있음.
 - 해당 지표의 저점 통과는 미 증시의 저점 형성과 매우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증시 외국인 매매 패턴과도 높은 상관관계수가 도출됨. CNN머니가 집계하는 Fear& Greed 지수도 이미 바닥권에 도달
- 3) 시나리오 별 대응 전략은?**
 - 예상 외의 부정적 이슈 도출과 실제 변화 발생 간의 시차가 크다는 점에서 영국 브렉시트 당시 움직임을 참고할 필요. 당시 공포심을 반영한 벨류에이션 저점은 PBR 0.895배 수준이었으며, 현재 KOSPI 환산 시 1,920pt 수준
 - 트럼프 당선 시, 안전자산 선호 확대 및 연준 정책 불확실성 증가,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금 가격 관련주, 건설업종 등에 관심
 - 힐러리 당선 시, 인프라 투자 및 신재생 에너지, IT 투자 확대 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건설기계, 비철금속, 대체에너지, IT H/W 업종에 관심

주식시장 투자전략

1. 미 대선, 이제는 결과를 확인할 때

일정	미국시간 (동부)	한국시간
주별 투표 개시	8일 06:00	8일 20:00
최초 투표 마감 지역 발생	8일 18:00	9일 08:00
주요 경합지역 투표 마감 (출구조사 발표 시작)	8일 19:00~	9일 09:00~
당선자 윤곽 확인 (언론사 당선자 언급)	8일 23:00~ 상황에 따라 가변적	9일 13:00~ 상황에 따라 가변적



자료: 텔레그래프,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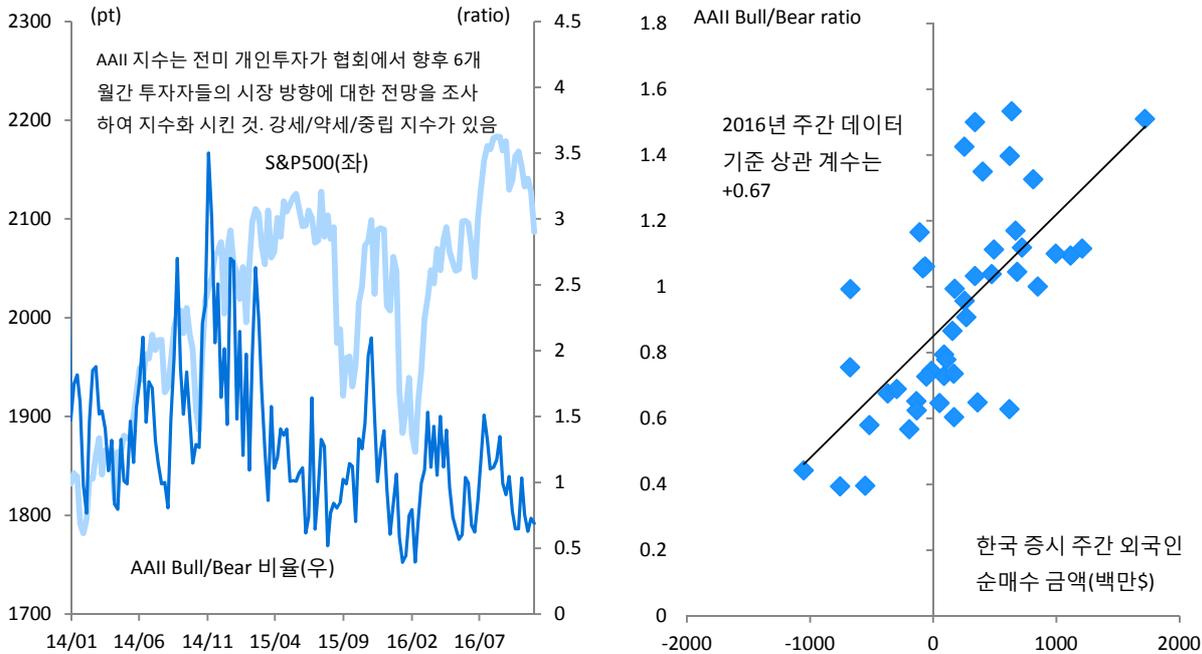
- ▶ 우리시간 8일 밤부터 미 대선 시작. 출구 조사 결과는 9일 아침 9시부터 확인
- ▶ 10월 중순 이후 트럼프 지지율의 상승은 글로벌 증시 전반의 조정 압력으로 작용

이번 주 미 대선 결과가 도출됩니다. 시간 대 별로 대략적인 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 별 시차가 존재해 마감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 먼저 투표가 마감되는 곳은 뉴햄프셔 주의 디스빌 노치로 동부시간 6시입니다. 가장 늦게 투표가 마감되는 알래스카는 9일 새벽 1시, 우리 시간 9일 오후 3시에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개표는 각 주 별 투표 마감 즉시 시작됩니다. 또, 경합주들의 투표가 마감되는 미국 시간 8일 오후 7시(우리시간 9일 오전 9시) 이후에는 언론사들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9일 국내 증시는 출구조사 결과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와 관련된 예상을 언급하기 쉽지 않은 시점이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힐러리 당선 시 그간 작용했던 부담 완화에 따른 회복 움직임 도래가 예상되며, 트럼프 당선 시 추가적인 충격 반영도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상 10월 중순 이후 글로벌 증시의 부진이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에 대한 영향을 사전적으로 받아 왔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식시장 투자전략

2. 일차적인 반응이 심리에 의한 것이라면 심리지표를 참고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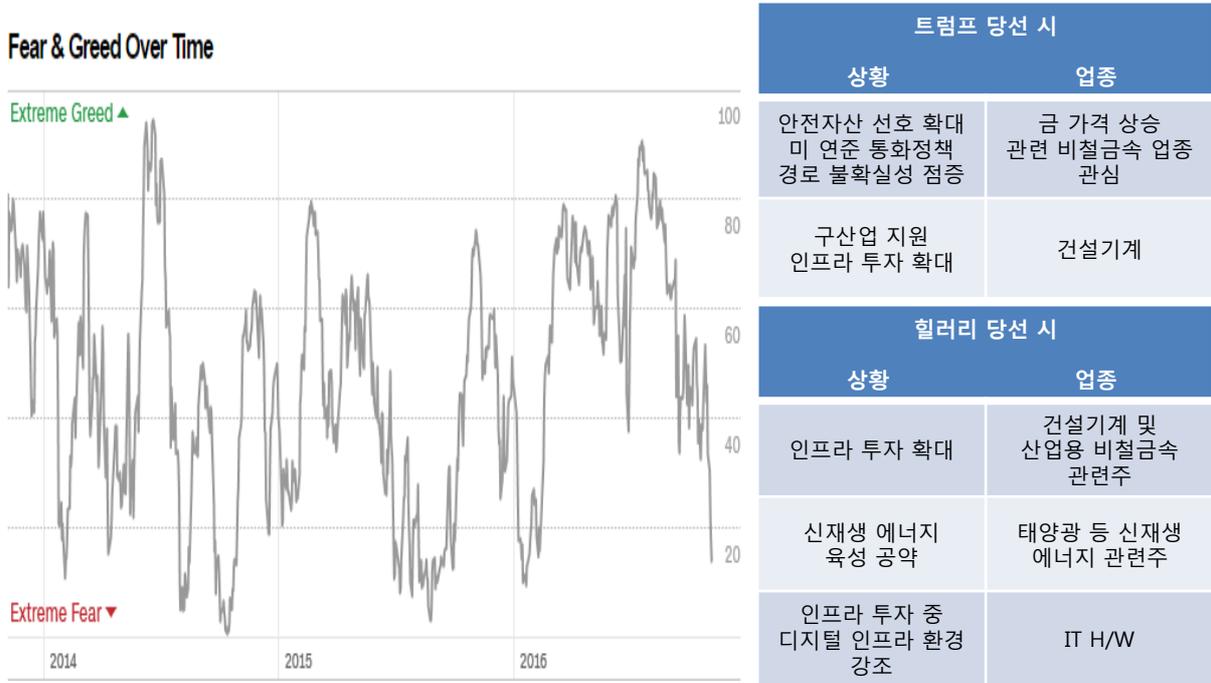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 AII B/B ratio 는 이미 경험적인 바닥권. 해당 지표의 저점은 S&P 의 저점과 일치
- ▶ 올해, 해당 비율과 한국 증시 외국인 순매수 현황과도 0.67의 높은 상관계수 도출

트럼프 당선 시 충격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시 강한 보호 무역주의, 과도한 재정적자 확대, 연준 정책 불확실성 증가 등의 우려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을 전제해도 대선 직후 실질적 변화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17년 1월 20일부터 시작되며,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 하더라도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의회통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 변화가 표출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결국 선거 결과 전후 시장의 단기적인 반응은 심리적인 측면에 의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0월 중순 이후 글로벌 증시는 이미 트럼프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는 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추가뿐만 아니라 최저 레벨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의 투자자 심리 지표들이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반응이 심리적인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트럼프 당선 시라 할 지라도 추가 하락 폭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럼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투자 심리는 위축될 만큼 위축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 투자전략

3. 시나리오 별 대응 전략은?



자료: CNN money,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 CNN 머니가 집계하는 Fear&Greed 지수도 14%로 극단적 공포 영역에 위치
- ▶ 트럼프 당선 시 안전자산 선호,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금가격 추가 상승 가능

제반 여건이 불확실하더라도 낮아진 주가는 그 자체로 저가 매수의 유입 여건이 될 수 있어 심리 지표의 저점은 매수 기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마’했던 이벤트의 발생과 결정 이후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브렉시트 투표 직후의 상황에 비견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당시 지수 저점은 PBR 0.895배 수준에서 형성됐는데, 현 상황에서 해당 벨류에이션을 적용한 KOSPI는 1,920pt 수준입니다.

결과 별 대응 단기 대응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트럼프 당선이 결정될 경우 최근 진행된 금 가격 상승세가 이어 질 듯 합니다. 안전자산 수요 확대 및 연준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금가격 상승세를 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 가격 관련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구 산업 회복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선언하고 있는 만큼 건설 기계에 대한 관심도 유효해 보입니다. 힐러리 당선 시의 경우 인프라 투자 확대와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건설기계, 비철금속, 태양광, IT H/W 등 폭넓은 접근이 가능해 보입니다.

주식시장 투자전략